

## 마음속의 영상(影像)

나는 내 머리 속에 확실한 어떤 이상적 여성의 모습을 언제나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저 희미한 어떤 윤곽이 있어 때로 그 눈만 빛나기도 하고, 그 이마만 드러나기도 하고, 그 마음만 만져지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온 모습이 한꺼번에 또렷이 드러나기도 하나, 그때에도 우리가 어떤 미인을 만나 어여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결코 그의 코와, 눈과, 입과, 귀를 따로따로이 또렷이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이 나는 그때 나의 머리 속에 있는 그의 이 모습 저 모습을 각각 구별해서 확실히 의식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는 그 순간의 나의 이상적 여성의 눈과, 코와, 입과, 귀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의 그 순간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따로따로이 인식하지 않고 그것들이 융합해서 빛어낸 그 전체만을 희미하게 의식하는 그때가 내가 그를 가장 또렷이 인식하는 때요, 어여쁘게 보는 때다.

이에 내가 나의 이상적 여성의 진정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그리려면 곧 이 순간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그런 순간을 포착하여 그대로 재현하

는 기술을 가지지 못했다. 발자크의 <알려지지 않은 걸작>의 주인공도 실로 이런 순간을 포착하여 그것을 분석하기 이전에 재현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상적 여성을 어떻게든 여기 그려 놓아야 한다. 이에 나는 그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따로따로 잘라 그려놓는 수밖에 없다. 그 각 모습을 융합시켜 어떤 영상을 얻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얻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상적 여성의 그것과 같을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어찌했든 그러나 놓고 보자.

그는 유순하기 양과 같다. 억척스런 여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때도 있으나, 나는 그에게서 아름답다는 느낌을 얻지 못한다.

그는 상냥하기 비둘기 같다. 고집센 여인은 나는 딱 싫다.

그는 다람쥐와 같이 영리하다. 미련한 여인은 꿈보다 더 큰 비극이다.

그의 애정은 호수보다도 그윽하다. 그러나 카르멘적 정열은 갖지 않는다. 카르멘적 정열은 일종의 야성이다.

그는 이지가 날카롭기 칼날 같으나 얼음처럼 차지도 북쪽 바람처럼 매섭지도 않다.

그의 목소리는 종달새같이 영롱하나 참새처럼 재잘거리지 않는다. 참새소리는 이른 아침 이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는 인견치마보다도 삼베치마를 즐긴다. 사치는 일종의 추파다.

그는 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시들은 장미꽃에 매력을 느끼는 때도 있으나 그것은 일종의 퇴폐적 취미다.

그의 머리칼에는 청춘이 깃들었다.

그의 눈에는 지혜가 빛난다.

그의 코에는 보드라운 의지가 섰다.

그의 귀에는 복이 탐스럽게 담겼다.  
그의 입 가장자리에는 애정이 서리었다.  
그의 손은 모나리자의 손이다.  
그의 발은 결코 크지 않다.  
자꾸 더 그리면 그럴수록 나의 이상적 여성과는 달라지고 전체 영상이 흩어져만 간다. 그만두자.

(《조광》, 4권 2호, 1938. 2. 1)